

타이틀	01. 이루리, 안내방송을 전달하다.
배경	A건설 경영지원부 외근 및 일정 현황 게시판이 보이는 사무실, 게시판에는 한대리, 이기사 외근 시간이 적혀 있다.
등장인물	이루리: 20대 여, 경영지원부 신입사원 김대리: 20대 여 신과장: 40대, 팀장
시놉시스	

금요일 점심, 이루리는 예전에 받았던 김대리의 청첩장을 확인하며 일요일에 결혼식을 갈 때 뭘 입을지, 축의금이나 축하메시지를 고민한다. 그때 마침 사내 안내방송이 나오지만 흘러 듣는 이루리. 토요일 오후에 건물 대청소로 인해 3층 복도 일부를 잠시 폐쇄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지만 자신은 주말 근무 예정이 없어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것.

그런데 과장님이 나가면서 이루리에게 지금 자리에 없는 한대리와 이기사가 주말에 회사에 나올 수 있다며 안내방송 내용을 전달해 그 시간은 피해라고 알려 주라고 지시한다. 네! 밝게 대답했지만 이루리는 폐쇄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는지 세부사항이 도통 기억나지 않는다.

잘 들을걸, 후회하던 이루리는 혹시나 싶어 입구 게시판에 가보는데 다행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루리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 청소 장소를 알아낸다.

이루리는 “과장님이 토요일 2시에 청소 때문에 복도 폐쇄한다고 그 시간은 피하시래요.”라고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는데, 지나가던 이대리가 ‘어디 복도가 폐쇄되는지 알아야 피하죠.’ 하고 말해 다시 고민한다. “0월 0일 토요일 2시~6시 왁스청소로 3층 복도 폐쇄. 주말근무 예정인 분들 그 시간은 피하세요.- 과장님 지시입니다”라고 정리하고 각각 책상에 붙여 놓는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 같은 내용을 다시 메신저로 내용을 전달, 한대리와 이기사에게 알았다, 고맙다는 말을 듣고 뿌듯해 한다. 퇴근 무렵, 방화문 앞이나 바닥에 물건이 있으면 치우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이루리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자세히 듣는다. 그리고 지나가던 이대리가 무슨 내용이라고 묻자 잘 설명해 준다.

이루리는 마지막으로 사내에 비치된 결혼축하 봉투를 찾아낸다. 하지만 봉투함이 섞여 부의금 봉투를 가져갈 뻔하다가 한자를 확인하고 실수를 면한다. 이루리는 섞인 봉투함을 잘 정리한 후 축하봉투에 자기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어 결혼식 참석을 준비한다.

대 본

#1 타이틀 : 이루리, 안내방송을 전달하다.

#2 사무실 이루리 자리

김대리가 지나가다가 생각났다는 듯이 이루리를 부른다.

김 아, 이루리씨. 모레 일요일 최과장님 결혼식에 가실 거죠?

루리 (밝게 웃으며) 네. 그럼요.

김 (소근소근) 저기... 축의금 말이에요. 대리급까지는 보통 3만 원씩 하니까 알아두시라고요.

루리 (같이 소근소근하며) 아, 네! 그렇지 않아도 걱정 중이었는데... 회사 내규에 나와 있나요? 규정집을 확인해볼 걸 그랬네요~

김 (웃으며) 3만 원씩 내라는 규정은 없죠~ 근데 우리 회사는 경조사규정이 있어서 결혼축의금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축의금은 부담 없이 그 정도로 해요. 뭐, 친하거나 하면 더 할 수도 있지만요. 일종의 조직문화랄까?

루리 아 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꾸벅 인사하면 끄덕이며 화면 밖으로 나가는 김대리)

밝게 미소 짓는 이루리 얼굴에서 화면 스톱되면서, 제각제각 소리와 함께 이루리의 속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여준다.

루리 (루리 얼굴 위로 생각하는 목소리만 들림/ 크게 깨달은 투로) 아, 조직문화?! 그렇구나! 규정집에는 없는 조직문화라는 게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겠네!

이루리, 청첩장 열어보며

루리 (두근두근, 혼잣말) 그림 축의금은 됐고. 예식장이 어디였지? 회사 결혼식은 난생처음인데 뭘 입고 가지?

그때 사무실에 안내방송이 나오기 시작한다.

방송 알려드립니다. 내일, 23일 토요일에는 고압전기시설점검으로 인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전 건물에 정전될 예정입니다. 정전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루리 (청첩장 보다가) 응? 정전? 뭐, 난 내일 나올 일 없으니까 상관없겠지. (계속 청첩장 보고)

#3 사무실, 오후

신과장, 재킷 입고 서류 들고 급하게 나가려다가 길목에 있는 이루리에게

신 (급히 나가다가) 이루리씨. 아까 정전 안내 들었죠?

루리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서) 네

신 외근 나간 이기사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이기사, 오늘 직퇴한다고 했는데, 내일 장비 충전하러 나온다고 했거든. 정전되는 걸 아는지 모르겠네? 정전된다고 꼭 전해주세요.

루리 네, 과장님. (미소 띤 얼굴로 대답하고, 과장님 뛰어나가고)

순간 화면 멈추며 제각제각 시계소리와 함께 잠깐 동안 미소 띤 루리의 머리 속에서 지나가는 속생각 멘트

루리 *그러니까, 이기사님이 내일 정전인 걸 모르고 그 시간대에 장비 충전하러 나오면 안되니까 정전 시간을 알려드리라는 거구나. 그런데... (당황해서) 정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였지? 잘 들을걸! 아, 사내 인트라넷 공지 게시판에 있을까?*

#4 사무실, 이루리 자리

매의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초집중해서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 스크롤을 내리며 검색하고 있는 이루리

루리 (마침내 씨익 웃으며) 있다. 2시부터 4시까지.

회사 전화를 들어 전화하는 이루리. 모니터에는 인트라넷으로 검색한 직원 전화번호부가 보인다. 뚜르르르 뚜르르르 벨소리만 계속 울리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 모니터상에서 보이는 이기사 연락처를 손으로 짚어 보며 전화기 창에 보이는 전화번호를 비교해 가며 번호를 제대로 눌렀는지 확인하는 이루리

루리 (어떡해야 하나 급적급적 고민하다) 일단 문자로 보내놓을까.

핸드폰으로 문자를 누르는 이루리. 덩동하고 이루리가 보낸 문자창이 화면에 나타난다.

루리 (문자창의 메시지 읽는 목소리) 이기사님, 이루리입니다. 내일 2시부터 4시까지 정전이라고 신과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루리 (가우똥) 뭔가 문장이 어색한데? 존칭이 틀렸나? “신과장님이 전하라고?”라고 써야 하나? 아니지. 과장님이 더 높으니까 존칭을 쓰는 게 맞지. 그럼 내용전달이 부족한가? 시간, 장소... 아! 어디가 정전되는지가 빠졌구나!

다시 덩동하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두 번째 문자창

루리 (문자 읽는 음성만) 다시 알려드리면, 내일 2시부터 4시까지 전기점검으로 저희 건물 전체가 정전될 거라고 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세요.

루리 (한 번에 문자를 보내지 못한 것 후회하며) 다음에는 무슨 말을 전달할지 미리 정리해 보고 문자를 보내야겠네. 그래도 이걸 맞지? (다시 한 번 손으로 짚어가며 날카로운 눈으로 문자내용 체크) 존칭, 오케이. 내용전달, 오케이.

#5 오후, 사무실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는 신과장 보인다. 루리, 다시 전화를 걸어보지만 여전히 이기사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초조한 이루리 얼굴에서 화면 멈추고, 빠르게 흘러가는 속생각

루리 (점점 더 초조해 지면서) 이기사님이 왜 전화를 안 받지? 전달 완료했다고 보고해야 하는데~ 문자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알 수가 없네... 어쨌든 난 전달했으니까 그냥 전달했다고 보고할까? 그런데 안 보냈으면?

한 손으로는 계속 이기사에게 전화를 하면서 파티션 뒤에서 눈만 내놓고 열심히 신과장을 살피는 이루리. 저편에 보이는 신과장은 진지하고 심각한 분위기로 전화통화 중, 똑똑 파티션을 치는 소리에 보면 김대리가 서있다.

김 (걱정스레)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루리 아뇨. 과장님이 지시한 내용이 있었는데 언제 보고해야 하나 해서요.

김 (이루리가 보는 방향으로 신과장 모습 같이 보며) 급한 보고 아니면 바쁜신 중에는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게 낫겠죠?

루리 네... 그래야겠다 싶었습니다.

김 궁금한 건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같은 팀이잖아요. 협업도 중요한 능력이에요.

루리 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김 그리고요, 일요일 결혼식에 오실 때, 혹시 모르니까 축의금 봉투를 좀 더 챙겨와 주세요. 꼭 뒤늦게 봉투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루리 네. 축의금 봉투는 비품실 서랍에 있는 거 맞죠?

김 맞아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총총 가고)

그때 덩동 문자 오는 소리가 들린다.

루리가 문자를 확인하면 이기사한테 온 답변문자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루리 (안도의 한숨) 후~

#6. 사무실 신과장 자리, 퇴근 무렵

신과장이 아까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로 서류 보고 있는데 루리가 다가온다.

신 (인기척에 고개 들어 보면) ?

루리 이기사님께 내일 정전된다고 전달 드렸습니다. 문자로 알려드렸고, 이기사님이 확인했다고 답변문자 보내셨습니다.

신 (끄덕) 네. (답하는데 다시 핸드폰 진동이 울려 바로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일어나 뒤에 창문 보면서 전화하는 모습)

졸지에 뻔뻔하게 앞에 서있게 된 이루리 표정에서 화면 멈추고 속생각

루리 끝난 건가? 가야 하나? 가도 되나? 안되나? 말하고 가야 하지 않나? 그럼 기다려?

그때 다시 나오는 안내방송, 이번에는 이루리가 자세히 안내방송을 듣는다.

방송 알려드립니다. (루리 눈빛 확 변하면서 집중해서 듣는 표정) 내일, 23일 토요일에는 고압전기 시설점검으로 인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전 건물이 정전될 예정입니다. 퇴근 시에는 냉장고 물품 체크와 PC 및 주변콘센트의 전원이 꺼져있는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그 외 정전으로 영향을 기기를 받는 기기들의 전원은 모두 꺼주시고, 중요 데이터는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전 중에는 내선전화 및 서버사용도 어려우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전화를 끊은 신과장

신 (이루리에게) 방송에서 뭐라던가요?

루리 아. 퇴근할 때 냉장고 물품 체크하고, PC랑 콘센트 전원도 다 끄고 가라고 나왔습니다. 정전으로 영향 받을 것 같은 기기들은 다 끄고 중요 데이터는 백업하라고요. 그 시간 동안은 내선전화랑 서버사용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 아. 고맙습니다. 가보세요.

루리 네

돌아서서 나오는 루리의 평온한 얼굴에서 화면 멈추며, 속생각

루리 (십년감수) 휴우~ 안내방송 또 놓쳤으면 큰일날 뻔 했네. 기본적으로 공지는 나랑 상관있던 없던 잘 알아뒀어야 하는 거였어. 음음. 이제 알겠어.

#7 비품실

퇴근길, 가방을 메고 들어와서 축의금 서랍을 여는 이루리

루리 축의금 봉투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 (멈칫)

쿠궁! 한자어로 쓰여진 축의금 부의금 봉투들이 쪽 나온다.

화면 멈추며, 제각제각 시계 소리와 함께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루리의 속생각

루리 뭐? 왜 다 한자야? 한자로 결혼은 보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자가 많으니 헛갈리네...

핸드폰 꺼내서 한자사전 검색하는 이루리

화면에 뜬 한자 크게 확대해서 봉투랑 비교하며 고른다.

루리 (축 결혼 봉투 뽑아 들고) 이거다!!! (봉투 뒤집어 보며) 이름은 어디에 쓰는 걸까? 에휴... 내일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따라 해야겠네~ (가방 속에 봉투 넣고 나가려다가 멈칫) 아, 그리고 보니 이기사님은 PC랑 콘센트 전원 다 끄셨나? 내가 해야겠다. 같은 팀이니까.

왔던 길 뒤돌아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는 이루리.
